증시 '글로벌 패닉' … 한국경제 덮치나

코스피 지수 급락 올 첫 사이드카 발동

하루 41조 증발 … 당국 긴급 점검나서

현기증 나는 객장 코스피지수가 올 해 처음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장중 한때 1600선이 무너진 22일 여의도 증권선물거래소에서 한 직원이 낙심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74.54 포인트가 빠진 1,609.02 포인트로 마감됐다. /연합뉴스

22일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폭락으로 인해 올해 첫 양시장 사이드카가 발동하는 등 급락을 면치 못하면서 바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붕괴여파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날 하루 41조8천억원이 증발하면서 객장마다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증권사마다 문의전화가 빗발치고 있으며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사지말고 기다리라'는 제안을 하면서도 '망연자실'한 모습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올해 첫 양시장 사이드카 등 불명예 기록 속출=이날 주식시장에는 불명예 기록이 쏟아졌다. 상장 종목의 90%가 하락했고,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는 등 체감온도는 싸늘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74.54포인트(4.43%)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8월16일 125.91포인트 이후 가장 컸으며 역대 6번째 최대였다.

코스닥지수도 614.80에 거래를 마쳐 10개월 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이는 지난해 3월14일(613.31) 이후 최저점으로, 하락률(-5.69%)과 하락폭(37.07포인트)도 지난해 8월16일 이후 가장 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809조1천939억원)과 코스닥시장(87조9천958억원)의 시가총액은 897조1천897억원으로 하루 사이에 41조8천323억원이 증발했으며 작년 말 대비로는 무려 154조5천735억원이 감소했다

특히 이날 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프로그램 매매 호가가 5분간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사이드카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오후 1시25분, 이에 앞서 코스닥시장에서는 오후 12시59분 각각 발동됐다.

◇글로벌 증시 급락 … 국내 금융시장 전반도 요동=증시 급락의 여파로 금융시장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50원 급등한 95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종가 기준으로 2006년 10월25일(955.70원) 이후 1년3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환율이 950원대로 진입한 것은 지난해 8월17일 이후 처음이다. 주식형펀드 수익률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과 자산운용협회에 따르면 설정액 50억원 이상인 주식형펀드 538개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수익을 낸 펀드는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투자자들 '망연자실' …"추가하락 배제 어려워"=이날 코스피지수의 '끝 모를' 추락에 일선 증권사 객장에서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미국발 글로벌경기 둔화 위기가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증시의 추가하락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데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체 대책반을 꾸려 펀드 환매 등에 대비해 집중 모니터링에 착수했으며, 재정경제부도 23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미국發 쇼크' 38國 강타

올들어 낙폭 20% 웃돌아

미국발 경기침체와 금융위기 한파 속에 프랑스, 멕시코, 이탈리아 등 38개국 증시가 작년 고점 대비 낙폭이 20%를 웃돌면서 약세장(베어마켓)으로 전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상 12개월 동안의 낙폭이 20%을 웃돌 경우 약세장으로 인식되는 데 전날 글로벌 증시의 동반 급락으로 최근 80개 주요국 증시의 절반 가량이 약세장 권역으로 진입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로 작년 11월 10대 선진국들 중 처음으로 약세장으로 진입했으며 중국이 곧바로 뒤를 이었다.

전날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추락하면서, 23개 선진국 주식으로 구성된 MSCI 세계지수는 3% 하락해 2002년 이후 최대 일중 낙폭을 기록하며 작년 10월 말 고점 대비 낙폭을 17%로 확대했다.

지수상으로 보면 선진국 증시는 약세장 문턱에 도달했으며 MSCI 신흥시장국 지수는 전날 약세장 권역으로 진입했다.

/연합뉴스

꼬리 내린 증권사들

"올해 호황" 호언장담 한달도 못돼 하향조정

올해도 증시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국내 증권사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당초에 제시한 장밋빛 코스피지수 전망을 낮췄거나 조만간에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올 들어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로 지수가 15% 이상 급락하면서 이미 증권사들이 제시한 지수 하단 밑으로 추락했기 때문이다.

22일 14개 주요 증권사의 코스피지수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6곳은 실질적으로 전망치를 낮춰 잡았으며 6곳은 조만간에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던 현대증권은 당초 연간 코스피지수 전망치인 1,870~2,460을 6개월 전망치인 1,600~1,980으로 대체했다.

대우증권도 세계경제 환경 변화로 상장사들이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다면서 주가이익배율(PER) 기준 지수 전망을 종전 1,800~2,400에서 1,700~2,300으로 낮췄다.

굿모닝신한증권은 지수 전망을 1,760~2,370에서 1,640~2,370으로 낮췄고 한화증권도 1.4분기 지수 전망으로 1,650~1,980선을 제시하면서 당초 2,550선까지 지수가 상승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에 수정을 가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공식적인 지수 전망치 1,715~2,100선을 유지하면서도 과매도 국면에서 1,540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올 농가소득 3,500만원

지난해보다 4% 늘어 … 국제 곡물가 급등 축산업은 '우울'

농촌경제硏 전망 보고서

올해 농가의 연소득이 작년보다 4%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개방과 곡물가·유가 강세로 인한 농축산업계의 부담은 계속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전망 2008'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농가당 소득은 3천593만원으로 작년의 3천454만원(추정치)보다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농업부문 부가가치(GDP)는 작년보다 2.6% 감소한 21조1천680억원에 머물겠지만, 농가 수가 2.1% 정도 줄고 농업소득 이외 각종 직불금 등의 이전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분야별로는 특히 축산업에 대한 우울한 전망이 많았다. 바이오 연료용, 개발도상국의 식용·사료용 곡물 수요가 크게 늘면서 올해 역시 국제 소맥(밀), 옥수수, 대두(콩) 가격은 각각 46%, 14%, 7% 오르고, 이에 따라 사료가격도 10~14%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육우 사육 마리수가 작년보다 5만~11만마리 많은 225만~231만마리로 늘어나는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까지 재개되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산지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갈비 허용 여부에 따라 한우 수소(600㎏)의 산지가격은 작년보다 5.9~10.5% 떨어진 424만~446만원에 머물고, 돼지(100㎏)값 역시 대체효과 때문에 5.6~9.0%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다.

유가 동향도 근심거리로 지적됐다. 올해 국제유가가 85달러보다 10%정도 올라가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 채소 농가의 소득은 9~15% 감소하고, 20% 상승해 100달러를 넘어가면 감소율은 13~20%까지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시장 규모가 올해의 1조8천989억원(추정치)에서 2조3천541억원으로 24% 급증할 것으로 기대됐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오는 2020년 친환경농산물 규모는 6조1천445억원으로 늘어 전체 농산물 시장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연합뉴스

원·달러 환율 950원대 급등

원·달러 환율이 주초부터 급등세를 지속하면서 950원대로 상승했다.

원·엔 환율도 2년3개월만에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원화가 달러화와 엔화 모두에 대해 초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외환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산되고 있어 외국인의 증시 이탈에 따른 환율 상승세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제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찾을 경우 미국 경제 부진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재개되면서 원·달러 환율도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관측했다.

2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5.50원 급등한 954.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2006년 10월25일 955.70원 이후 1년3개월만에 최고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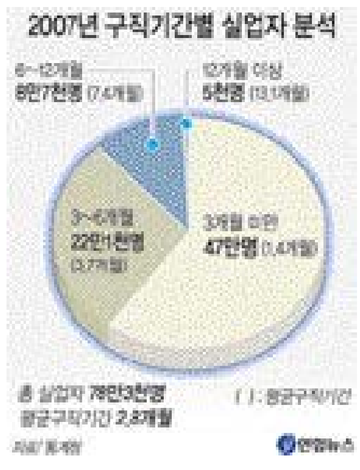
원·엔 환율은 전날보다 100엔당 10.80원 급등한 899.20원을 기록했다.

2거래일간 100엔당 17.80원 급등하면서 2005년10월31일 899.40원 이후 2년3개월여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원화가 달러화에 약세를 보이는 것은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들이 주식 매각대금을 대거 달러화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반년이상 구직 활동 불구

실업자 신세 10만명 육박



반년 이상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한 실업자가 1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전년 대비 4만4천명 감소한 78만3천명으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2.8개월로 집계됐다. 실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2003년 2.6개월에서 2004년 2.8개월로 늘어난 뒤 4년째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4주간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며,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자를 실업자로 분류한다.

지난해 실업자를 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반년 이상 일자리를 찾아 나섰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모두 9만2천명으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7.7개월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구직기간이 6~12개월인 실업자는 8만7천명,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7.4개월로 전년에 비해 인원은 2천명 늘었지만 구직기간은 0.1개월 가량 줄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직활동에 나선 장기실업자는 지난해 모두 5천명으로, 이들의 평균 구직기간은 13.1개월이었다. 2006년에 비해 인원은 4천명, 기간은 0.9개월이 각각 감소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회사채 3,500억 발행

기아차는 CP 발행 잔액의 일부 상환을 위해 회사채 3천500억원을 발행한다고 22일 공시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오는 31일로 만기가 도래하는 CP 발행 잔액은 2천억원"이라며 "이를 상환하기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회사채는 금리 6.9%, 만기 1년1개월이다. /연합뉴스

올 설 연휴 최대 9일

2만2천여명 해외여행

작년보다 80% 이상 늘어

올 설 연휴에 징검다리 휴일로 최대 9일까지 쉴 수 있게 됨에 따라 명절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여행객이 몰릴 전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투어가 21일 기준으로 예약받은 설 연휴 사흘간(2월5일-7일) 해외 여행객은 2만2천465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2월16일-18일)에 해외 여행을 다녀온 1만2천561명보다 80% 이상 늘었다.

그동안 설, 추석 등의 명절에 하나투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원이 사흘 기준으로 1만여명 선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 설 연휴의 해외 여행객은 사상 최대인 셈이다.

더구나 이달 말까지 설 연휴 해외여행 예약을 받으면 3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여 올 설 연휴에 인천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목적지별로는 동남아가 1만594명, 중국이 5천468명, 일본이 4천236명, 괌·사이판이 1천131명, 유럽이 390명, 미주가 346명, 호주·뉴질랜드가 300명 순으로 대부분의 해외 여행객은 동남아와 중국, 일본에서 설 연휴를 보낼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인수위 "주유소 가격 공개 예정대로 4월 시행"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2일 현 정부가 내놓은 고유가 대책의 하나인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동안 주유소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가격 실시간 공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인수위는 국민의 편익 극대화를 위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10% 인하 목표로 추진중인 유류세 인하 효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를 위해 석유공사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전국 1만2천개 주유소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종합해 지도정보와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달 셋째주 휘발유 가격은 지역별로 ℓ당 256원 차이났다"며 "이 시스템을 도입, 활용해 ℓ당 100원 정도 싼 주유소에서 주유한다면 일반적으로 연간 14만원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참여하지 않는 주유소에 대해 제재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은빈	웹디자이너 경력자 채용합니다.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1/25	062-524-6277
GS25 한가온점	안네데스트 인포직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26	062-432-9042
㈜광주 팜	기획 사무업무 직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01/26	062-525-0036
영창중공업㈜	회계/자금/경리 경력사원 모집	초대졸/경력5년	2600~2800	01/26	062-717-5523
㈜국보수산	품질팀 팀장(HACCP) 모집합니다.	대졸/경력3년	회사내규	01/28	061-654-2556
초원문고	초원문고 납품팀 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1/28	062-574-7007
ADQ COMMUNICATION	출력/편집디자이너(MAC) 모집	초대졸/경력2년	회사내규	01/30	062-227-0333
㈜모노디자인	웹기획 및 영업지원 경력자 모집	초대졸/경력2년	2200~2400	01/30	062-462-3433
헤어캇또	정규직 카운터 매니저 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1/30	062-233-2264
(재)호남직업전문학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금형설계,전기,통신,전자)모집	초대졸/경력2년	1800~2000	01/30	062-605-8080
두메푸드시스템㈜	[외식부] 영양사 / 푸드코디네이터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571-6000
㈜씨티이엔지	측지측량 지하시설물조사측량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62-531-4808
정우개발㈜	정우개발(주) 경리부(광주)-차장급이상	초대졸/경력8년	2800~3000	01/31	062-513-6700
㈜이공하이텍	전기공사 공무 남사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31	010-3021-6060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